

취재 · 사진 김한나 리포터 ybnni@naeil.com

아~ 웃고 있어도
눈물이 난다♪♪



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자녀들과 생
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마주하게 되
죠.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거나, 속을 알 수 없어 눈물
이 나거나, 어느새 다 지웠다 싶어 기특함도 느껴집니다.
소소하지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
보려 합니다. 부모들의 해우소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
다.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메일(ena
@naeil.com)로 보내주세요. _편집자

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

코로나19로 시절이 하 수상한 요즘 사람들의
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‘가짜뉴스’들이 심심치
않게 등장하고 있죠. 바이러스를 피해 ‘집콕’ 중
인 아이들과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한참
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대화가 마무리 될 즈음
남편이 “이번 달 애들 학원비 낸 거 정리 좀 해
봐”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듣던 둘째가 “갑
자기 왜 학원비를 정리해?” 하니 큰애 왈 “아,
아빠가 돈 없어서 너 학원 끊으려고 하는 거잖
아!” 하더니 킬킬거립니다. “너! 방금 가짜뉴스
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했는데 가짜뉴스를 퍼
뜨려?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손들어!”

갑자기 주어진 넘쳐나는 시간, 아이들의 수다
본능은 멈추질 않더니 급기야 엄마 아빠의 과
거를 소환하기까지 이릅니다. “근데 왜 아빠는
대학을 옮겼어?” 둘째가 전공을 전향해 다시
입학한 남편에게 묻더군요. 남편의 두 번째 대
학이 제 모교입니다. 캠퍼스 커플에서 한 집

에 사는 부부로 연이 닿은 곳. 센스 넘
치는 엄마가 대답해줍니다. “엄마 만
나려고 그랬지~” 말이 끝나기 무섭게
빛의 속도로 튀어나온 남편의 반응,
“이리 와서 무릎 꿇고 손 드세요!” 이
건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엄중
한 가짜뉴스라며 흥분한 아빠의 모
습에 아이들은 배꼽을 잡습니다.



가짜뉴스 유포 죄로 ‘무릎 꿇고 손들어’
벌칙을 수행하는 아들. 엄마는 20년간
함께한 ‘전우애’로 특별 면제됐다는
‘사실’을 알림.

전 언니처럼 살기 싫어요~

중학생 딸아이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문 정기고사에서 2점을 받았습니
다. 거짓말 아니냐고요? 그랬으면 좋겠네요. “너 이리와! 뭐, 2점? 한 번호로
만 다 찍어도 이거보다는 높겠다!”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. “엄마, 진짜 공부해
보려고 했는데 교과서를 펴니까 아는 글자가 없더라고요! 진짜 시작하면 끝
이 안 날 거 같아서 무서워서 책을 덮었어요.”

한자가 이 모양이라 다른 과목도 엉망인가 싶어 근처 학원을 수소문했죠. 최소 2명은 돼
야 수업을 개설해준다는데, 도저히 수준이 비슷한 친구를 구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
초등생 작은애랑 묶어 보냈어요. 일주일 뒤,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. 숙제도 한 번
을 안 해오고 수업 시간 태도도 너무 불량해 큰아이를 그만 보내라더군요. 더 가관은 작
은아이는 기어코 한문 학원을 다니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. 1명은 안된다고, 언니가 못
가서 너도 수업이 불가능하다 했더니 이 초등학교 5학년 꼬마가 하는 말, “엄마, 전 진짜
언니처럼 되기 싫어요, 영영.”
하... 저도 같이 울고 싶네요.

차라리 꿈이었으면, 2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보
니 사람이 너무 놀라면 화도 안 난다는 사실을
깨달았다는 제보자.

2차 지필평가 2학년 한문과 (코드번호 : 12)

문항수	선택형 25문항, 서술형 4문항	만점	100점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학교에 있
서 저작물이
를 어길 시
다.

《4-5》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古之人은 以號代名者가 多矣라.

4. ③의 풀이로 옳은 것은? (2점)

① ~에 ② ~의 ③ ~이/가 ④ ~까지 ⑤ ~부터

5. 위 문장 속에 쓰인 한자의 풀이가 옳은 것은? (4점)

① 人 - 부사 ② 以 - 수사 ③ 代 - 형용사
④ 多 - 명사 ⑤ 矣 - 어조사

아들아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

겨울방학 전, 학교에서 학생부에 진로 희망 사항을 올려야 하니 이를 후까지 장래 희망과
희망 이유를 적어 오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.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써야 하느냐며 머리
를 쥐어뜯는 아들을 보니 어찌나 속이 타던지. 그 와중에 또 엄마가 뭘 권하면 화만 내는
거예요. 왜 자신의 진로를 엄마가 결정하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저
도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. 제출 당일 아침,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가보니 세상에! ‘수의
사’라는 멋진 꿈을 적어놨더군요. 장하고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여주며 “오구오구~ 장한
내 새끼! 그래, 네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따스한 심성의 소유자라는 걸 엄마는 진
즉 알아봤어! 서울에 수의대가 서울대랑 건국대가 있다던가? 이제 우리 아들 열
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네!” 기분 좋게 아이를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
이 울립니다. 어? 교무실 번호 같은데, 무슨 일이지? “XX어머니? 안녕하세요, 담
임입니다. XX가 오늘 제출한 장래 희망 때문에 확인 차 전화 드렸는데요, XX이
꿈이 ‘조련사’가 맞나요?” “....” “여보세요, 어머니? 듣고 계시죠?” @

“분명 이렇게 예쁘게 ‘수의사’를
적어가지 않았니, 아들아?”라는 완곡한
물음에 대한 자녀의 답을 아직도 듣지
못했다는 후일담이 있음.

* 나의 진로 희망 사항에 대해 기재하시오

희망 진로	
수의사	동물을 애끼고 사랑함